

# 시민 중심 시정혁신 4대 전략 본격 추진

## 장기 혁신 어젠다 마련하고 비리·부조리 제로 조직 혁신 기관·지자체 협업행정 박차

광주시는 10일 "4차 산업혁명과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혁신 4대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혁신체계를 구축한 광주시는 올해는 시민정치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혁신 4대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미래 광주를 준비하는 장기 혁신

어젠다를 마련한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광주가 처해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미래를 대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 광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시정과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인사, 조직, 문화, 재정 등 전반적인 공공분야 혁신을 정착시키고 비리와 부조리 제로의 일과 성과 중심 조직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인사·조직·문화 등 내부행정 및 시 공공기관 혁신안의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화한다.

정부혁신과 연계해 시장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정혁신실행계획도 수립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보호, 기회균등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상을 적극 발굴해 점검하는 등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와 지방노동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과의 협업 등 기관 간 협업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협치 행정으로 행정수행의 적기성과 효과성을 강화한다.

전남도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공방이전 등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치행정의 모범 모델도 만든다.

시정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실적가점, 해외연수, 표창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실제 혁신 성과를 낸 공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이장식 혁신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지하철2호선, 공항 이전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현안들을 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시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시정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3억원 지원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을 현대화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식품진흥기금 3억원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식품위생업소로 100㎡ 미만 영세업소, 세계수업선수권대회대비 시설 개선 참여 희망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 업소, 음식점 위생등급 및 어린이보호식품 판매업소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연 2%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최고 7000만원, 식품위생업소 등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업소 내 화장실 개선자금은 1%로 1000만원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는 연 1%로 3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은 금액에 따라 1년 거치 3년 또는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업장, 조리시설, 화장실 등 개선자금으로 822곳에 총 174억36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식품안전과(613-4362) 또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올 첫 한파주의보 선제 대응 피해 최소화

### 광주시 대책본부 가동 취약계층 안전보호 등 활동

광주시가 올 겨울 처음으로 발령된 한파주의보에 선제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11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자 즉시 한파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활동을 실시했다.

한파대책본부는 주의보 발효 시 단계, 경보 발효 시 단계로 가동되며, 본부 구성은 상황관리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재난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운영된다.

시는 3월 15일까지를 한파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노숙인, 쪽방촌거주자 등 한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 동 주민센터 등과 협업해 방문건강관리사, 사회복지사, 재난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난도우미 2000명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도우미들은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순

회방문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또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 시 전역에 500곳의 한파 쉼터를 지정하고, 지하차도와 공원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순찰활동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될 경우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5개 자치구 소방서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출동, 긴급구조 등 소방·방재 기능을 강화한다.

정민권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겨울에는 15명의 한랭질환자와 750여 건의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한랭질환자 3명,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6건 등이 발생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8일 오후 시청 17층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최초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 숙박·가스·석유 시설 등 1500여개 시설물 안전대진단

### 광주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숙박·목욕 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가스·석유 저장시설, 해빙기 취약시설 등 1500여 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파악된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물과 건축물 1500여 개이며,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현장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17층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회의실에서 정종재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실·국장, 자치구 부구청장, 공사·공단 사장이 참여하는 '2019 안전대진단 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전대진단은 정부·자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시행했다.

시는 안전대진단을 효율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 기동 안전점검반을 운영한다.

기동 안전점검반은 대진단 기간 시민이 위험시설로 제보하거나 점검을 요청한 시설,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시

는 80명 규모의 소방·전기·가스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지원단을 편성했다.

또 안전대진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관찰단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모니터링하고, 대진단을 마친 후 시민관찰단과 점검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진단 점검 대상과 2019년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제외된 시설은 대진단 기간 중 시 재난예방과(613-2681)로 신청하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나방**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 광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지원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상반기는 1400억원, 하반기는 600억원의 규모로,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전업을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비로 2~3%의 이차보전액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한 후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4년부터 중소기업 관련 기업에 매년 2000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골든타워**  
(중동 락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대지지분 78평, 건물210평(실147평)**
- 2012년 준공, 주차편리
- 6층중 4층 전체,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
- 주위에 업무용/상업용/근린생활시설등 혼재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

문의. 010-3605-5000